

경제산책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로 평가된다. 지난해는 취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한다.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경제성장'을 타개하려면 지난해 신설했던 중소기업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 회복 등 경제지표는 나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중심 경제, 중기부 역할 중요

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서민경제는 점점 팍팍해지는 탓에 괴리감도 상당하다.

정부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민소득과 직결된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단편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홍준хар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출범식에서 "대기업도 벤처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왔고, 외환위기 때에는 혁신 벤처기업이 위기극복을 견인했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돼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 혁신, 공정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부문(1-299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내수 회복세 및 창업 활성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일자리 창출에 약 90%를 기여하고 있지만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직무 관련 전문성은 낮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들의 임금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2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중소기업이미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점수는 51.4점으로 대기업(71.5점)에 비해 20점이나 낮게 나오기도 했다.

홍준хар 장관의 말처럼 중소기업부가 수호천사, 세일즈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방안을 찾이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에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호감점수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한다.

위대용 기자 wee@

주간단상



박영찬 디클코리아대표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 나는 얼마나 세상에 대해 감사하고 베풀어 왔는가? 덕이란 세상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덕(德)이란 말을 파자(破字)하면, 얻을 득(得) 마음 심(心) 두 글자를 합한 것이 된다. 한마디로 덕은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려는 소통능력(疏通能力)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한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만의 권위를 쌓아 나가고 있다. 우리마음이 권력이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덕(德)으로서 베트남과 소통(疏通)한 지도자 호치민

2006년 10월 5시간의 비행 끝에 베트남(Vietnam)경기도시 호치민에 도착했다. 내가 베트남에 간 것은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왜 사람의 이름인 호치민 시티로 바뀌어졌는지 궁금해서였다.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살다간 호치민은 7개 국어를 했던 지도자였다. 나는 수십 차례 베트남 북부에서 중부, 남부를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 본적이 있다.

"What do you think of Ho Chi Minh?"(호치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들려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Bacho(박초: 호아저씨라는 뜻)였다.

그때 들려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Bacho(박초: 호아저씨라는 뜻)였다. 그의 위대한 스피치, 국민과의 소통 중 다음과

덕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1960년 초중반 인도차이나전쟁이 한창일 때 호치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베트남의 유능한 학생 15만 여명을 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한다.

"우리도 총 들고 싸우겠습니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전투다."

"너희들은 결코 학업을 마치지 전까지 조국에 돌아와선 안 된다.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감은 통일이 된 후 폐허가 된 베트남을 아름다운 나라로 재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통일 조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쟁 와중에 자국 학생 15만 여명을 외국에 유학 보내 교육입국을 강조했던 지도자가 일찍이 있었는가?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호치민은 과감히 실행했고, 그때 뿌린 씨앗이 베트남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호치민의 리더십은 바로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품고 아끼고 사랑하는 덕에서 나왔기에 1969년 서거한지 34년이 지나도록 베트남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외국생활을 통해 서양문물을 접했고, 애국심과 청빈한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간 인간적인 지도자였던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 쓰는 것은 예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가? 쓰는 것이 중요한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쓰는 것은 예술이다. 33세 백만장자, 43세 미국최고의 부자, 53세 세계최대의 갑부였지만 2년 후의 사로부터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가 병원복도를 걸어 나올 때

자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자신을 바라본다. 병원입구를 나오는데 한 간호사가 여성분과 닮은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제발, 우리 딸 입원 좀 시켜주세요."

"안됩니다. 병원비를 먼저 갖고 오셔야 되요." 가까이서 이 모습을 지켜 본 그는 혼자서 생각한다.

"그래도 저분의 딸은 나보다는 더 행복하구나. 나는 전 재산을 준다 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저 아이는 단지 돈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할 뿐이구나."

그분은 비서를 시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내어 준다. 그리고 얼마 후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된다.

"어린 천사 같은 분이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린다. "이게 바로 인생인데..."

그리고 얼마 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학교인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낸 돈의 10%는 항상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술적으로 벌여 예술적으로 쓰면서 세상을 살다 간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국의 석유재벌이었던 록펠러이다.

1년 시한부가 아닌 43년을 더 살다가면서 그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아왔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떨까?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덕으로 소통하는 지도자가 아닐까 기대해 본다.

시공기업에 유익한 TIP

중재제도에 대하여

○ 지난 기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인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고 분쟁조정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간소히 해결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중재제도에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중재합의에 의해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중재의 장점으로는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대략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해 심리자체의 소요기간도 단축해 진행됨으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2~3개월 내에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중재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의 부담없이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계약당사자간의 중재합의(계약서상 중재조항)된 계약에서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심리(통상 2~4회, 신속절차는 1회)를 통해 중재판정 또는 화해판정으로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창호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기자의 눈



김광국 기자 kimgg@

사고는 났지만 원인 규명은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25일 우이신설선 운행 중 단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흘렀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25일 오전 우이신설선은 슬램덕에

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계·시공의 문제라는 지적부터, 운영사 측의 전문성 결여까지 이유도 제각각이다. "실제 사고원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더러 들린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음에도 운영사는 물론, 유관기관·부처에선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 철도안전감독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던 국토교통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서울시는 외부 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올해 초부터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만시

'우이신설선, 원인 없는 사고는 없다'

서 북한산보국문역으로 가던 중 전차선 단전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영사 측은 현장직원을 급파 사태 수습에 나섰다. 노선 운행은 전면 중단으로 이어져 이튿날 오전에야 정상 운행됐다.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는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설비가 운행 중이던 열차와 부딪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 현 시점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운영사 측의 공식적인 발표

지탄(嗚時之歎)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인 규명은 사고 발생 이후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인 동시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전철 이용객들은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7만명, 개통 3개월을 맞은 우이신설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다.

사고는 났지만 원인도, 해명도 없는 기이한 상황 속에 수만 명의 이용객을 태운 우이신설선은 오늘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KOCOM featuring IoT technology and smart home systems. Includes text: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LED조명 시스템까지', '코콤은 1976년 설립 이래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디지털 영상기술과 네트워크 통신기술로...', and '주식회사 코콤'.